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의 의미적 특성

김경열(충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하다’ 복합서술어의 의미적 특성 |
| 2. 복합서술어 구성 성분의 의미적 특성 | 3.1. ‘하다’ 복합서술어의 일반적 특성 |
| 2.1. 복합서술어 구문의 일반적인 특성 | 3.2. 선행 성분에 따른 ‘하다’ 복합
서술어의 특성 |
| 2.2. 선행성분의 의미적 특성 | |
| 2.3. 후행성분 ‘하다’의 의미 특성 | 4. 결론 |

1. 서론

국어에서 ‘하다’는 다양한 구조의 문장을 만든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하다’가 복합서술어의 후행 성분으로 쓰인 복합서술어 구문의 의미적 특성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한국어 문장에 대한 연구는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 된다는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본고에서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복합서술어 구문 중 대표적인 것이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이라는 것이다.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은 통사적으로는 구의

성격을 갖지만 선행 성분과 ‘하다’가 결합하여 하나의 통사원자로 기능한다. 즉, 독자적인 논항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둘째는 복합서술어 구문은 복합서술어를 구성하는 선행 성분이나 후행 성분이 논항을 요구하게 된다. 그중 ‘하다’ 복합서술어는 선행 성분의 논항 구조에 따라 문장이 실현되는 명사 주도형 복합서술어를 형성한다. 물론 일반동사가 쓰일 경우에도 명사 주도형 복합서술어가 실현될 수 있으나 그 예가 많지 않다.¹⁾

이러한 복합서술어 구문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많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동사에서 영과생된 서술성 명사와 기능동사가 결합하여 복합서술어를 형성한다. 이는 매우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다.²⁾ 하지만 복합서술어는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의 결합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된 통사적 특성 예측이 어렵다. 대부분의 복합서술어 논의가 이러한 통사구조에 대한 것이었다. 즉, 복합서술어 구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통사구조에 대한 것이어서 그 의미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장에서는 복합서술어 구문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서술어의 구성 성분인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³⁾ 또한 ‘하다’를 기존의 논의(홍재성(1987:167), 이홍식(2000)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능동사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서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의 일반적 특성과 선행 성분에 따른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1) 본고에서의 기능동사는 기존의 기능동사와 그 의미가 다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2장에서 다룰 것이다. 기능동사, 복합서술어 구문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경열(2014) 참조.

2) 복합서술어 구문에 대한 국내 연구에는 이선희(1993), 서승현(1999), 이호승(2003), 김경열(2104) 등이 있고, 국외 연구로는 Jackendoff(1972), Cattell(1984) 등이 있다.

3) 본고에서의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은 복합서술어를 구성하는 성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다’ 복합서술어에서 ‘공부를’은 선행 성분, ‘하다’는 후행 성분이 된다.

2. 복합서술어 구성 성분의 의미적 특성

2.1. 복합서술어 구문의 일반적인 특성

복합서술어 구문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통사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었다. 본고는 복합서술어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자세한 논의는 생략할 것이다.⁴⁾ 복합서술어 구문에 대한 연구들의 공통된 특성을 핵심 특성과 관련 특성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 복합서술어는 독자적 논항구조를 갖는다.
나. 복합서술어는 내적 분리성을 갖는다.

- (2) 가. 통사적 긴밀성에 정도 차이
나. 구성성분들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

(1)은 복합서술어 구문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1가)는 복합서술어가 독자적인 논항구조를 갖는 통사원자로 쓰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동사나 형용사처럼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1나)처럼 내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구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만약 내적 분리성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동사나 형용사처럼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복합서술어를 설정할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⁵⁾ 이에 따라 내적 분리성을 핵심 특성으로 본 것이다.

(2)는 복합서술어 관련 특성으로, (2가)는 (1나)와 관련이 있다. 즉, 모든 복합서술어의 내적 분리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핵심

4) 복합서술어 구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호승(2003), 김경열(2014) 참조.

5) 내적 분리는 조사나 부사어 등의 삽입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복합서술어의 내적 분리성이 동일하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통사적 긴밀성의 차이에 따라 분리성의 정도가 다르게 실현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사적 긴밀성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성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이다. (2나)는 복합서술어의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에 대한 특성이다. 이호승(2003)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행 성분에 대해 서술성을 갖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후행 성분은 소위 기능동사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선행 성분으로 서술성이 없는 명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고, 후행 성분을 기능동사로 보기 어려운 구문도 실현된다. 나아가 이러한 의미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할 때, 관용구를 복합서술어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복합서술어의 핵심 특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복합서술어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3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2.2. 선행 성분의 의미적 특성

‘하다’에 선행하는 성분은 명사, 부사, 비자립성 어근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 복합서술어는 대부분 서술성을 갖는 명사가 올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복합서술어 구문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선행 성분이 명사인 경우 서술성을 갖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복합서술어에서 선행 성분은 서술성을 갖는다. 그러나 선행 성분이 반드시 서술성을 가져야만 복합서술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자료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선행 성분은 서술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⁶⁾

본 절에서는 이러한 복합서술어의 선행 성분의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서술성을 갖는 명사가 올 경우를 살펴보자. 다음 예문을 보자.

6) 명사의 서술성에 대해서는 이병규(2001), 이선웅(2005) 등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본고에서 ‘서술성’이란 의미적으로 논항을 요구하고 동시에 상적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적 실체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서술성 명사’란 의미적으로 논항을 요구하고 동시에 상적 특성을 가지는 명사로 정의하고자 한다. 서술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병규(2001), 이선희(1993), 홍채성(1997) 등을 참고할 수 있고, 명사의 서술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선웅(2005)을 참조할 수 있다.

- (3) 가. 한국은 세계 각지로 농산물을 수출을 한다.
- 나. [?]한국은 세계 각지로 수출을 한다.
- 다. 한국은 세계 각지로 농산물을 {*많은/많이} 수출을 {많이} 한다.
- 라. *한국은 세계 각지로 농산물을 수출을, 미국은 공산품을 수출을 한다.

(3가)는 ‘수출을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이다. 일반적으로 ‘하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논항으로 갖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런데 (3가)에서는 ‘하다’의 논항이라고 할 수 없는 ‘농산물을’이 실현된다. 이것이 생략된 (3나)는 어색한 문장이 된다. ‘농산물을’은 복합서술어의 선행 성분인 ‘수출’의 논항이 명사구 밖에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동사나 형용사와 달리 분리성을 갖는다. (3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출을 하다’가 서술어라는 것은 수식하는 성분이 관형어가 아니라 부사어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라)는 후행 성분이 생략된 문장으로 비문을 나타낸 것이다. 즉, 이는 ‘수출을 하다’가 하나의 통사원자로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복합서술어의 선행 성분 ‘수출’은 서술성을 갖는다. 그러나 서술성을 갖는 선행 성분이 쓰인다고 해서 모두가 복합서술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4) 가.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자주 했다.
- 나.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자주 했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주 했다.
- 다. 남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4가)는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으로 볼 수도 있다.⁷⁾ 하지만 (4나)에서 보듯이 선행 성분이 후행절에서 생략될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것을 알

7) ‘거짓말’은 두 개의 논항구조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미상 목적어를 갖지 않을 수도 있고, 의미상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다. ‘남편의 아내에게의 거짓말’의 논항구조는 의미상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경우이고, ‘남편의 결혼 거짓말’의 논항구조는 의미상 목적어를 갖는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의미상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4가)에서 ‘아내에게’는 부가어라고 할 수 있다.

수 있다. 위의 (3)과 다른 것은 선행 성분이 논항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3가)에서 선행 성분 ‘수출’은 ‘농산물’이라는 논항을 갖지만, (4가)에서 ‘거짓말’은 논항을 갖지 않는다. 또한 [+행위성]을 갖지 않는다. 이와 달리 (4다)에서 ‘거짓말’은 [+행위성]을 가지기 때문에 서술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거짓말’의 내용 논항인 ‘라고’ 논항이 실현될 경우에는 복합서술어 구문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즉, (4)는 ‘하다’에 선행하는 명사가 서술성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하다’ 구문으로 실현될 수도 있고, 복합서술어 구문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이처럼 서술성을 갖는 명사와 ‘하다’가 결합하여 복합서술어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복합서술어를 받아들이는 논의에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⁸⁾ 하지만 서술성을 갖지 못하는 명사가 쓰일 경우에도 복합서술어를 형성할 수 있다.⁹⁾ 다음 예문을 보자.

(5) 가. 문학작품에서 물은 역사를 상징을 한다.

나. 물의 역사 상징 / *물이 한 역사

다. 문학작품에서 물은 역사를 (*확실한/확실히) 상징을 {확실히} 한다.

라. *문학작품에서 물은 역사를 상징을 하고, 불은 혁명을 한다.

(5가)는 ‘상징을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이다. (5다)에서 분리성을 확인할 수 있고, (5라)에서 통사원자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 성분

8) 그러나 서술성을 갖는 명사라 하더라도 문맥에 따라 서술성이 아닌 추상적인 사태를 나타낼 경우에는 복합서술어를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철수가 공부를 하고 있다.’와 같은 문장에서 ‘공부’는 서술성을 갖지 못하고 단순히 사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복합서술어 구문으로 볼 수 없다. 이때 ‘공부’는 상동사나 상명사와의 통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서술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술성 명사는 서술성 명사와 사태 명사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다. 사태명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병규(2001) 참조.

9) 이호승(2003) 정도에서만 비서술성 명사와 ‘하다’가 결합하여 복합서술어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호승(2003) 참조.

‘상징’은 상적 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서술성 명사라고 볼 수 없지만 논항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¹⁰⁾ 즉, ‘역사’는 후행 성분인 ‘하다’의 논항이 아니라 선행 성분인 ‘상징’의 논항이다. (5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징을 하다’는 독자적인 논항구조를 갖는 하나의 통사원자로서,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5가)는 <NP1-이, NP2-을>을 논항으로 갖는 복합서술어 구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서술성이 없는 명사가 복합서술어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논항을 갖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서술성이 없는 명사가 복합서술어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선행 성분이 논항을 갖지는 못하지만 후행 성분과 결합하여 독자적인 논항구조를 갖는다면 이 역시 복합서술어를 형성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6) 가. 철수는 의자를 뒤로 했다.

나. *철수는 뒤로 했다.

다. 철수는 의자를 {*완전한/완전히} 뒤로 {완전히} 했다.

라. *철수는 의자를 뒤로 했고, 영희도 의자를 했다.

라'. 철수는 의자를 어떻게 했니?

마. *의자가 뒤이다.

(7) 가. 영화 변호인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나. *영화 변호인은 바탕으로 했다.

다. 영화 변호인은 실화를 {*자세한/자세히} 바탕으로 {자세히} 했다.

라. *영화 변호인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영화 귀향도 실화를 했다.

라'. *영화 변호인은 실화를 {어떻게/무엇으로} 했니?

마. 실화가 바탕이다.

(6가)와 (7가)는 ‘하다’의 선행 성분으로 서술성이 없는 관계명사가 쓰인

10) ‘상징’은 상명사나 상동사와 통합이 허용되지 않고 어떤 대상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서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장이다. 두 문장 모두 내적인 분리성이나 통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6가)는 ‘하다’ 구문으로 보아야 할 듯하고, (7가)는 ‘바탕으로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이는 (6라’)와 (7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6라’)는 ‘뒤로’를 ‘어떻게’로 대체해 본 문장이다. 자연스럽게 성립됨을 볼 수 있다. 이는 ‘뒤로 하다’가 하나의 통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7라’)에서는 ‘바탕으로’가 대체되지 못한다. 즉, ‘바탕으로 하다’가 하나의 통사원자로 쓰이기 때문에 대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6가)는 〈NP1-이, NP2-을, NP3-로〉를 논항 구조로 갖는 ‘하다’ 구문으로 보아야 하고, (7가)는 〈NP1-이, NP2-을〉을 논항 구조로 갖는 ‘바탕으로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으로 보아야 한다.¹¹⁾

이렇듯 서술성이 없는 경우에도 복합서술어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성분으로 서술성이 없는 명사로서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복합서술어의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을 이어주는 조사가 격조사가 아닌 보조사 형태로 실현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8) 가. 철수가 행복은 하다. / *철수가 행복을 하다.
 나. 철수가 매우 행복은 하다.
 다. *철수가 행복은 매우 하다.
 라. 철수가 행복은 하니 안 하니?

(8가)는 ‘하다’ 구문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하다’가 주어와 목적어를 논항으로 갖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를 ‘하다’ 구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만약 ‘하다’ 구문으로 본다면 주어 ‘철수’는 행위주의 의미역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주어 ‘철수’는 경험주의 의미역을 가진다.

11) 예문 (6)과 (7)에서 ‘하다’를 ‘짓하다’나 ‘만들다’ 등의 대동사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짓하다’나 ‘만들다’가 ‘하다’로 대체될 수는 없다. 따라서 (6)과 (7)에서 ‘하다’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은 ‘하다’의 어휘 의미가 추상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NP-으로 V’ 복합서술어에 대한 논의는 김경열(2016) 참조.

이는 선행 성분인 ‘행복’의 선택제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8가)는 ‘행복은 하다’ 복합서술어로 볼 가능성이 있다. (8나)에서 ‘행복은 하다’가 부사어의 수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복은 하다’가 하나의 통사원자로서, 서술어로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8다)에서 보듯이 내적 분리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과 (8라)에서 보듯이 선행 성분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복합서술어와 달리 통사적 긴밀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¹²⁾ 즉, 선행 성분으로 ‘상태’의 의미를 갖는 명사가 올 경우에도 복합서술어를 형성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가 쓰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선행 성분의 논항이 통사적 논항인지 의미적 논항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듯하다. 다음 예문을 보자.

- (9) 가. 선물 (X=선물하는 사람, Y=선물을 받는 대상, Z=선물의 내용)
 나. ?철수의 영희에게의(영희에 대한) 꽃의 선물
 다. 영희에 대한 철수의 선물
 라. 철수가 영희에게 꽃을 선물을 했다.

(9가)는 ‘선물’의 논항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9나)에서 보듯이 ‘선물’의 통사적 논항이 모두 실현될 경우에는 부자연스럽지만 (9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물의 내용’이 생략되면 자연스럽다. 이는 (9라)에서처럼 ‘선물을 하다’를 복합서술어로 설정하게 되면 논항이 아주 자연스럽게 실현된다. 따라서 선행 성분의 논항구조를 파악할 경우에는 통사적 논항뿐만 아니라 의미적 논항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하다’의 선행 성분이 명사가 아닌 경우를 살펴보자. ‘하다’의 선행 성분으로는 명사 이외에도 비통사적 어근 등이 올 수 있다.¹³⁾ 다음 예문을 보자.

12)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13) 이 외에도 ‘하다’의 선행 성분으로는 의태어, 성상부사, 의존명사 등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들은 모두 복합서술어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내적 분리성을

- (10) 가. 교실이 깨끗은 하다.
 나. 교실이 매우 깨끗은 하다.
 다. *교실이 깨끗은 매우 하다.
 라. *교실의 깨끗 / *교실이 한 깨끗
 마. 깨끗은 한 교실

(10가)는 (8가)와 유사한 구조이다. 하지만 이는 ‘하다’ 구문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통사적 긴밀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깨끗하다’가 보조사 ‘은’에 의해 내적으로 분리성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행 성분 ‘깨끗’은 논항을 가지지 못하며, ‘깨끗은 하다’가 새로운 논항을 요구하지도 못한다.¹⁴⁾ 따라서 (10가)는 ‘하다’ 구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에 대해 임홍빈(1979)에서와 같이 어근분리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¹⁵⁾ 즉, ‘하다’의 선행 성분으로 비통사적 어근이 올 경우에는 복합서술어를 형성할 수 없다.

종합해 보면, ‘명사’와 ‘하다’가 결합해서 복합서술어를 형성할 경우, 선행 성분인 ‘명사’는 대부분 서술성을 갖는다. 하지만 서술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도 복합서술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때 선행 성분인 ‘명사’는 ‘하다’의 논항이 아닌

가진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논항구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사원자로 쓰이지 못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 14) 본고에서 말하는 복합서술어의 논항구조란 복합서술어의 구성 성분들이 독립적인 통사원자의 자격을 가지지만, 어떤 이유로 해서 이들이 합성되어 새롭게 형성되는 독자적인 논항구조를 뜻한다. 따라서 복합서술어의 내적 분리성은 복합서술어의 구성 성분들이 독립적인 통사원자로 기능할 수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통사적인 성격의 내적 분리성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불규칙적 어근은 단독으로는 문장에서 통사적 단어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사원자가 아니다. 또한 후행 성분은 파생접미사이기 때문에 이 역시 독립적 통사원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10가)는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이 모두 통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사에 의해 내부가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복합서술어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15) 임홍빈(1979)의 어근분리 현상은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복합서술어 전체를 어근분리 현상으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경열(2014:61) 참조.

다른 논항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복합서술어의 새로운 논항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행 성분의 논항을 파악할 경우에는 의미적 논항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하다’의 선행 성분으로 명사가 아닌 비통사적 어근이나 부사어, 의존명사, 의성·의태어 등이 올 경우에는 내적인 분리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복합서술어를 형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독립적인 통사원자의 자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2.3. 후행 성분 ‘하다’의 의미 특성

‘하다’에 관한 논의는 매우 많다. 그런데 복합서술어의 후행 성분으로서의 ‘하다’에 관한 논의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하나는 ‘하다’를 기능동사로 볼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동사로 볼 것인가이다. 이 중 기존 연구에서의 ‘기능동사’ 개념을 볼 때 ‘하다’가 일반동사의 성격을 가질 경우에는 복합서술어를 형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하다’가 과연 기능동사로 쓰이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기능동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능동사란 Jespersen(1965)에서는 ‘경동사(light verb)’로, 홍재성(1992), 이선희(1993), 이홍식(2000)¹⁶ 등에서는 ‘기능동사’로 제시하였다.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경동사’는 ‘시제나 일치를 나타내는 제한된 기능을 하는 의미적 내용이 가벼운 동사’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 ‘기능동사’는 ‘어휘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장의 논항들에 대한 선택 제약이나 의미역을 부과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능동사는 어휘적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문장의 필수 성분의 결정에 어떠한 기능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16) 홍재성(1992)은 서술성 명사와 결합하는 후행 동사는 모두 기능동사로 보고 있고, 이선희(1993)는 ‘하다’만을 기능동사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홍식(2000)은 ‘하다, 되다, 이다’를 복합서술어를 구성하는 기능동사로 제안하고 있다.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어긋나는 예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1) 가. 철수는 미국{을/으로} 여행을 했다.
 나. 철수는 미국{*을/으로} 여행을 갔다.

(11가, 나)는 ‘여행을 하다’, ‘여행을 가다’ 복합서술어 구문이다. 그런데 (11나)에서 보듯이 ‘을’ 논항이 실현될 경우에는 비문이 된다. 만일 ‘하다’와 ‘가다’를 기능동사라고 한다면 (11나)에서 조사 ‘을’이 쓰일 경우에 비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후행 성분이 논항의 실현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한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다’의 선행 성분과 결합하는 조사가 ‘을’, ‘으로’, ‘보조사’ 등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하다’가 선택 제약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소위 ‘기능동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2) 가. 선생님께서 하교하라고 학생들에게 명령을 했다.
 가'. 선생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냐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
 나. 선생님께서 하교하라고 학생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나'. *선생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냐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내렸다.

(12가)는 ‘명령을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이고, (12나)는 ‘명령을 내리다’ 복합서술어 구문이다. 후행 동사가 다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한 논항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두 복합서술어들이 갖는 논항들의 의미역도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이 두 복합서술어 구문의 논항구조만을 대상으로 하면, 홍재성(1997)의 ‘기능동사’ 개념이 성립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다’나 ‘내리다’가 모두 기능동사라면 (12가, 나)의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 일반동사 ‘내리다’의 어휘의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음 예문을 보자.

(13) 가. 철수는 입병으로 고생을 한다.

나. 기차가 부산으로 출발을 했다.

(14) 가. 철수는 그가 범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나. 심사관은 영희가 제일 잘했다고 평가를 내렸다.

(13가)의 ‘고생을 하다’의 주어 ‘철수’는 경험주역을 갖고, (13나)의 ‘출발을 하다’의 주어인 ‘기차’는 대상역을 갖는다. 다시 말해, ‘하다’ 복합서술어의 주어 논항이 갖는 의미역은 선행 명사에 따라 결정되고 ‘하다’에 의해서는 결정되지 못한다. 하지만 (14)와 같이 ‘내리다’ 복합서술어 구문은 주어 논항이 모두 행위주역을 갖는다. 종합해 보면, ‘내리다’가 쓰여 복합서술어를 구성하는 경우는 ‘내리다’의 어휘의미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알 수 있다. 따라서 후행 동사가 ‘하다’인 경우를 제외하면 복합서술어를 구성하는 후행 동사들이 선행 명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나 복합서술어의 주어 논항의 의미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어휘의미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다’ 이외의 후행 동사들을 어휘적 의미를 갖지 않는, 홍재성(1997)적인 의미의 기능동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선희(1993)에서는 이와 달리 ‘하다’ 만을 기능동사로 보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5) 가. 철수가 영희에게 임무를 교육을 한다.

나. 영희가 철수에게 자신의 임무를 교육을 받았다.

다. 선생님이 철수에게 영희의 임무를 교육을 시켰다.

(15가)는 ‘교육을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 (15나)는 ‘교육을 받다’ 복합서술어

구문, (15다)는 ‘교육을 시키다’ 복합서술어 구문이다. 선행 성분은 모두 서술성 명사 ‘교육’인데, 후행 동사가 ‘하다’, ‘받다’, ‘시키다’로 다르다. (15가)에서는 ‘교육’의 의미상 주어 논항인 ‘철수’가 ‘교육을 하다’의 주어인 ‘철수’로 실현되고, (15나)에서는 ‘교육’의 대상역 논항인 ‘영희’가 ‘교육을 받다’의 주어 ‘영희’로 실현되고, (15다)에서는 ‘교육’의 논항이 아니라 ‘시키다’가 요구하는 사동주역 ‘선생님’이 ‘교육을 시키다’의 주어인 ‘선생님’으로 실현되었다. 이는 ‘하다’, ‘받다’, ‘시키다’의 어휘의미가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즉, (15가)의 ‘하다’ 복합서술어는 주어가 특정한 의미역을 갖지는 않지만, ‘하다’의 능동적 의미가 작용하여 선행 명사의 의미상 주어 논항이 ‘하다’ 복합서술어의 주어로 실현되게 한다. (15나)에서는 ‘받다’의 어휘의미에 따라, (15다)는 ‘시키다’의 어휘의미에 따라 선택된다. 이런 사실은 (15가)의 ‘하다’가 선행 명사(교육)와 결합하여 ‘하다’ 복합서술어를 구성할 때 이 복합서술어의 논항구조 형성에 일정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하다’가 매우 추상적이지만 어휘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복합서술어를 형성하는 후행 성분이 소위 기능동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능동사를 어휘적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선행 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복합서술어 구문의 주어로 실현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복합서술어 구문의 주어가 갖는 의미역을 제한해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표적으로 ‘하다’가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하다’만을 기능동사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능동사 ‘하다’는 복합서술어 형성에서 선행 성분과 의미의 통합을 이룬다고 본다. 이때 ‘하다’는 그 의미가 매우 추상화되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의존성을 가지며, 선행 성분과 의미적으로 결합하여 복합서술어의 구체적 의미 양상과 논항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¹⁷⁾

17) 일반적인 ‘하다’가 어휘·의미적으로 갖는 논항 수와 구문의 통사적 논항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논항 수의 변화를 기술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합서술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다’는 행위성을 갖지만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고, 선행 성분으로 서술성 명사가 올 경우에만 행위성을 갖는 것이다. 이는 선행 성분의 의미와 ‘하다’의 의미가 통합되어 행위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행위성을 갖지 않는 선행 성분이 올 경우에도 ‘행복은 하다’처럼 복합서술어를 형성할 수 있다. 즉, ‘하다’가 의미적 의존성을 갖기 때문에 선행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6) 가. 엄마가 밥을 한다.
- 나. 철수가 국어를 공부를 한다.
- 다. 철수가 건강은 하다.

(16가)는 ‘하다’ 구문이고, (16나, 다)는 각각 ‘공부를 하다’, ‘건강은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기능동사를 인정하는 논의에서는 (16가)의 ‘하다’만이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16가)의 ‘하다’는 분명 의미가 있다. 행위주와 대상은 모두 ‘하다’의 논항이 된다. (16나)에서도 ‘하다’에 행위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공부’를 ‘하다’의 논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6가)와는 달리 이는 ‘공부를 하다’ 복합서술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어’는 ‘하다’의 논항이 아니고 선행 성분(공부)의 논항이 명사구 밖에 실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다’가 ‘공부’라는 목적어 논항을 요구하고, 이 ‘공부’와 ‘하다’가 결합하여 ‘공부를 하다’ 복합서술어를 형성하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16다)는 선행 성분의 어휘 의미와 상태적 속성을 배제한 채 ‘하다’에 어떤 명시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하다’는 행위주를 논항으로 갖지만 (16다)의 주어 ‘철수’는 경험주역을 갖는다. 이는 선행 성분 ‘건강’의 의미상 주어가 ‘건강은 하다’ 복합서술어의 주어로 실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다’의 논항 구조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즉, (16가)는 ‘하다’의 논항 구조로 모두 설명이 가능한 ‘하다’ 구문이 되지만,

(16나, 다)는 ‘하다’의 의미가 선행 성분(공부, 건강)과 결합하여 새로운 논항 구조를 형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하다’의 상태성, 서술성 등은 선행 성분의 특성에 따라 의미가 통합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하다’의 의미가 추상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6가)와 같이 선행 성분으로 구체명사가 올 경우에는 일부만이 결합할 수 있지만 복합서술어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16나, 다)와 같이 서술성이나 상태성을 가진 것이 올 경우에는 이들의 의미 특성에 이끌려 ‘하다’의 의미가 추상화되고 의미의 통합이 일어나 복합서술어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하다’에 의미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하다’의 의미가 추상화됨에 따라 의미 의존성이 커지게 되어 선행 성분으로 어떤 것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7) 가. 철수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를 했다.
 나. 철수가 난관에 봉착을 했다.
 다.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다.
 라. 철수가 행복은 하다.

(17)은 모두 ‘하다’가 후행 성분으로 쓰인 복합서술어 구문이다. (17가, 나)는 서술성 명사, (17다)는 비서술성 명사, (17라)는 상태명사가 선행 성분으로 쓰였다는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17가)는 주어가 행위주역을 나타내며, (17나, 라)는 경험주역, (17다)는 대상역으로 실현된다. 이를 ‘하다’의 논항 구조로 설명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다면 주어의 의미역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하다’ 의미의 추상화로 인해 선행 성분의 의미 특질과 결합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하다’ 복합서술어에서 선행 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의미구조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통합에 따라 복합서술어 구문의 논항 구조가 결정되는 것이다.

3. ‘하다’ 복합서술어의 의미적 특성

3.1. ‘하다’ 복합서술어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으로 문장은 동사의 논항 구조에 따라 그 의미와 구조가 실현된다. 그러나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에서는 ‘하다’의 논항 구조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즉,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인 ‘하다’의 의미가 통합되어 복합서술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하다’ 복합서술어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2)에서 제시한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2)를 다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 가. 통사적 긴밀성에 정도 차이
- 나. 구성성분들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

‘하다’ 복합서술어의 통사적 긴밀성에 대해 살펴보자. 복합서술어의 통사적 긴밀성은 차이를 보인다. 서승현(1999)나 이병규(2001)에서는 이러한 통사적 긴밀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즉, 통사적 긴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복합서술어로 보지 않는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8) 가. 철수가 학원에 등록을 했다.
- 나. 철수가 국어를 공부를 한다.

- (19) 가. 철수가 학원에 한 등록
- 나. *철수가 국어를 한 공부

(18가, 나)는 ‘등록을 하다’, ‘공부를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이다. 이를 ‘하다’ 구문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학원’과 ‘국어’는 ‘하다’의 논항이 아니라

선행 성분의 논항이 명사구 밖에 실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9)에서 보듯이 선행 성분 ‘등록’과 ‘공부’가 표제명사 되기에서 차이를 보인다.¹⁸⁾ 즉, ‘등록을 하다’와 ‘공부를 하다’ 모두는 복합서술어이지만 통사적 긴밀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물론 통사적 긴밀성을 통해 이 두 부류를 구분해 주는 일은 언어 현상을 기술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류가 근원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구성이나 하는 점이다. 본고의 입장에서 보면, 두 문장 모두 내적 분리성이 있고, 독자적인 논항구조를 갖고 있는 복합서술어라는 것이다. 따라서 통사적 긴밀성의 정도 차이만을 갖고 복합서술어 여부를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¹⁹⁾

다음으로 복합서술어의 논항이 선행 성분 및 후행 성분과 의미적 관련성²⁰⁾을 가지는가를 살펴보자. 이는 선행 성분이 반드시 서술성을 가져야 하는가와 후행 성분이 기능동사이어야 하는가와 연결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즉,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에서는 선행 성분의 논항이 명사구 밖에 실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복합서술어와 선행 성분이 의미적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후행 성분 역시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어휘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의미적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복합서술어가 선행 성분이나 후행 성분과 의미적 관련성을 가져야만 하는가 문제가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²¹⁾

18) 이에 따라 서승현(1999)에서는 (18나)와 같이 통사적 긴밀성이 강한 것만을 긴밀형식으로 보고 있다.

19) 서승현(1999)에서는 명사의 관계관형화 성립 여부, 명사의 분열문에 의한 초점화 성립 여부, 명사의 자리 이동 여부, 명사의 주제화 성립 여부, 관형어의 명사 수식 여부를 식별 기준으로 삼아서, 긴밀형식은 이러한 현상을 허용하지 않고, 유사 긴밀형식은 이 현상을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승현(1999)는 부사어 삽입 현상은 긴밀형식과 유사 긴밀형식의 식별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20) 여기서의 의미적 관련성은 복합서술어 구성의 어휘내향 정보가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의 어휘적 의미로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1) 이호승(2003)에서는 복합서술어는 전체 구성과 구성 요소들이 의미적 관련성을 맺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관용구는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이 결합한 전체 구성과 각각의

대표적인 것이 관용구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0) 가. 철수가 나를 비행기를 태웠다.
나. 어제만 생각하면 내가 속이 터진다.
나. 해장국을 먹었더니 속이 풀린다.

(20가)는 관용구 ‘비행기를 태우다’가 쓰인 문장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비행기를 태우는 직설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직설적 의미로 해석될 경우에는 ‘태우다’ 구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이 추어올려 주다’라는 관용구로 해석할 때에는 ‘태우다’ 구문으로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는 ‘태우다’의 어휘적 의미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본고에서는 이 역시 복합서술어 구문으로 보고자 한다. 복합서술어의 어휘내향 정보가 ‘비행기를 태우다’의 선행 성분이나 후행 성분의 어휘적 의미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비행기를 태우다’가 내적 분리성을 가지며, 하나의 통사원자로서 독자적인 논항 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용구가 하나의 의미를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관용구를 과연 복합서술어로 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20가)의 문장은 서술어 ‘태우다’의 논항구조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태우다’를 서술어로 설정한다면 이는 일반적인 서술어라고 할 수 없다.

(20나, 나) 역시 관용구가 쓰인 문장이다. 그런데 (20가)와 달리 의미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후행 성분인 ‘터지다’와 ‘풀리다’ 때문에 논항 구조가 다르게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각의 성분은 독자적으로 쓰이지 못한다. 이 역시 ‘속이 터지다’와 ‘속이 풀리다’가 내적인 분리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통사원자로서 독자적인 논항 구조를

구성 요소들이 의미적 관련성을 맺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복합서술어의 범주에 넣지 않고 있다.

갖는 복합서술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즉, 관용구는 단어들의 의미로부터 추론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를 그 구성 전체가 지니기 때문에 구성성분들과 의미적 관련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관용구는 복합서술어의 핵심 특성인 내적 분리성과 독자적 논항구조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복합서술어로 보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다’ 복합서술어에서는 ‘하다’의 추상화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1) 가. 철수가 국어를 공부를 한다.
나. 철수가 영희에게 패배를 했다.

(21가)는 ‘공부를 하다’, (21나)는 ‘패배를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이다. 그런데 (21가)에서 주어 ‘철수’는 행위주를 나타내지만 (21나)에서 주어 ‘철수’는 경험주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하다’는 주어로 행위주를 요구한다. 그런데 (21나)에서 주어가 경험주로 실현되는 것은 ‘하다’의 의미가 그만큼 추상화되어²²⁾ 선행 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복합서술어 구문의 주어로 실현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복합서술어 구문의 주어가 갖는 의미역을 제한해 주지는 못하는 기능동사이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종합해 보면 ‘하다’ 복합서술어는 통사적 긴밀성에서 차이를 보이며, 구성성분들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을 가진다. 그리고 추상화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2. 선행 성분에 따른 ‘하다’ 복합서술어의 특성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은 선행 성분의 논항구조에 따라 실현되기 때문에

22) ‘하다’의 추상화에 대해서는 필자의 부족으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선행 성분이 무엇이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선행 성분이 논항 구조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하다’ 복합서술어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선행 성분이 논항구조를 가지는 경우 선행 성분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²³⁾ 다음 예문을 보자.

- (22) 가. 철수는 영희와 데이트를 했다.
- 나. 철수는 국어 선생님을 존경을 한다.
- 다. 철수는 종업원에게 짜장면을 주문을 했다.

(22)는 ‘하다’의 선행 성분으로 모두 행위명사가 쓰인 복합서술어 구문이다. (22가)에서는 ‘영희와’, (22나)에서는 ‘국어 선생님을’, (22다)에서는 ‘종업원에게’와 ‘짜장면’이 선행 성분의 논항으로 실현된 것이다. 즉, 선행 성분이 통사·의미적으로 요구하는 논항구조에 따라 통사구조가 다르게 실현되지만, 선행 성분은 행위명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복합서술어 구문의 주어는 모두 행위주로 실현된다. 따라서 ‘하다’에 선행하는 성분이 행위명사일 경우에는 선행 성분에 따라 논항구조만 다르게 실현된다. 이러한 유형의 선행 성분이 올 경우 ‘하다’의 추상화가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3) 가. 반기문은 오늘 공항에 도착을 했다.
- 나. 철수는 예선전에서 탈락을 했다.
- 다. 어제 아침에는 세숫대야의 물이 결빙을 했었다.
- 다. *물이 한 결빙

(23)은 ‘하다’의 선행 성분으로 작용명사가 쓰인 문장이다. 모두 복합서술어

23) ‘하다’와 결합할 수 있는 선행 성분에는 명사, 명사성 어근, 부사, 부사성 어근, 대명사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서 본고에서는 ‘하다’와 결합하여 복합서술어를 형성하는 일부 명사를 대상으로 살펴볼 것이다. 3.2.에서 살펴보는 명사는 이호승(2003)에서 분류한 명사를 바탕으로 살펴본 것이다.

를 형성한다. (23가)에서는 ‘공향에’가, (23나)에서는 ‘예선전에서’가 선행 성분의 논항으로 실현된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23다)에서는 새로운 논항이 실현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어 ‘물이’는 ‘하다’의 논항이 아니라 선행 성분인 ‘결빙’의 논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23다)를 ‘하다’의 다의어적 용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23다)의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즉, (23다)는 ‘결빙’의 의미상 주어와 명사구 밖에 실현된 복합서술어 구문으로 보아야 한다.

(22)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23가, 나)에서는 주어가 경험주역으로, (23다)에서는 대상역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는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이 명사 주도형 복합서술어이기 때문에 선행 성분에 따라 통사구조나 주어의 의미역이 다르게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4) 가.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표상을 한다.
 나. 이곳의 지명은 바위 이름에서 유래를 했다.
 다. 영희네 집은 우리집과 이웃을 한다.

(24)는 ‘하다’의 선행 성분으로 관계명사가 쓰인 문장으로, 모두 복합서술어를 형성한다. (24가)에서는 ‘대한민국을’이, (24나)에서는 ‘바위 이름에서’가, (24다)에서는 ‘우리집과’가 선행 성분의 논항으로 실현된 것이다. 이때 복합서술어 구문의 주어는 모두 대상역으로 실현된다. 이 역시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이 명사 주도형 복합서술어이기 때문에 선행 성분에 따라 통사구조나 주어의 의미역이 다르게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5) 가. 아버지께서는 건강은 하다.
 가. *아버지께서 한 건강
 나. 그 부부는 행복은 하다.
 나. *그 부부가 한 행복

(25)는 ‘하다’의 선행 성분으로 상태명사가 쓰인 문장이다. 이 역시 모두 복합서술어 구문을 형성한다. 특이한 것은 선행 성분의 논항이 주어 이외에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23다)처럼 ‘하다’의 다의어적 용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25가, 나)의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문장의 주어가 경험주로 실현되는 것은 선행 성분의 선택제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이한 것은 복합서술어의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을 이어주는 조사가 격조사가 아닌 보조사 형태로 실현된다는 것과, 다른 복합서술어와 달리 통사적 긴밀성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은 명사 주도형 복합서술어이기 때문에 선행 성분이 무엇이나에 따라 통사구조나 주어의 의미역이 다르게 실현된다. 이 중 선행 성분이 행위명사인 경우가 ‘하다’의 추상화가 가장 약하며, 선행 성분이 상태명사인 경우가 통사적 긴밀성이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하다’ 복합서술어의 의미적 특성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부분의 복합서술어 연구에서는 복합서술어의 통사적 특성을 위주로 한 것이었다. 즉, 의미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대상을 ‘하다’ 복합서술어로 한정하여 살펴본 이유는 복합서술어를 논의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를 모두 복합서술어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후행 성분으로 다른 일반동사가 쓰인 복합서술어 구문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2장에서는 복합서술어 구문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복합서술어의 구성 성분인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선행 성분은 서술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때 선행 성분은 ‘하다’의 논항이 아닌 다른 논항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복합서술어의 새로운 논항이 실현되어야 한다. 선행 성분으로 비통사적 어근이나 부사어, 의존명사 등이 올 경우에는 복합서술어를 형성하지 못한다.

후행 성분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먼저 기능동사의 정의를 새롭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다’는 어휘적 의미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선행 성분의 의미상 주어가 복합서술어 구문의 주어로 실현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복합서술어 구문의 주어가 갖는 의미역을 제한해 주지는 못하는 기능동사로 정의하였다.

후행 성분인 ‘하다’는 선행 성분과 결합하여 복합서술어를 형성할 때 의미통합을 이룬다. 이때 ‘하다’의 의미는 매우 추상화된다. 따라서 선행 성분의 특성에 따라 의미가 통합되고 구조가 달라지게 된다.

3장에서는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의 일반적 특성을 통사적 긴밀성, 의미적 관련성, ‘하다’의 추상화 정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선행 성분의 종류에 따라 논항구조와 주어의 의미역이 다르게 실현됨을 살펴보았다. ‘하다’는 복합서술어는 통사적 긴밀성에서 차이를 보이며, 구성성분들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을 가진다. 그리고 추상화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하다’ 복합서술어 구문은 선행 성분의 종류에 따라 논항구조나 주어의 의미역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복합서술어, 의미, 의미통합, 기능동사, 서술성, 하다

<참고문헌>

- 김경열(2016), 「‘NP-으로 V’ 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성과 유형」, 『새국어교육』 제107호, 한국국어교육학회, pp. 489-516.
- 김경열(2014), 「현대국어 복합서술어의 특성과 논항구조 연구」, 충북대 박사학위 논문.
- 서승현(1999), 「‘명사-조사-용언’ 긴밀 형식 구문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병규(2001), 「국어 술어명사문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선웅(2005), 『국어 명사의 논항구조 연구』, 월인.
- 이선희(1993), 「복합술어 구문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호승(2003), 「국어 복합서술어 연구: [명사+조사+동사] 구성의 경우」,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흥식(2000),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월인.
- 任洪彬(1979), 「用言의 語根分離 現象에 대하여」, 『언어』4-2, 한국언어학회, pp. 55-76.
- 홍재성(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국어학연구선서 9, 탑출판사.
- 홍재성(1992), 「동사 먹다의 사전적 처리를 위한 몇 가지 논의」, 『새국어생활』2-4, 국립국어연구원, pp. 14-37.
- 홍재성(1997), 「이동동사와 기능동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22-1, 연세대 한국어학당, pp. 121-140.
- Cattell, R.(1984), *Syntax and Semantics composite Predicates in English*, New York Academic Press.
- Jackendoff, R. S.(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The Mass MIT Press.
- Jespersen(1965),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 London Geroge Allen & Unwin.

[Abstract]

Semantic Characteristics of Complex Predicate 'hada'

Kim, Gyeong-yeol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dentify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complex predicate 'hada'. That's because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have not been discussed a lot. Also the reason why the subject of study is confined to complex predicate 'hada' is to be accepted as complex predicate in most studies for complex predicate to be discussed.

Complex predicate constructions have the internal separation and independent argument structure. Though the preceding constituent of complex predicate has predicative, that's not absolutely the case. However the preceding constituent must have not argument 'hada' but other argument. If not so, a new argument must be realized. In case that asyntactic root, adverb or bound noun is used as the preceding constituent, complex predicate can not be realized.

Light verb is 'its lexical meaning is not meaningless but very abstract, so light verb performs a role that sense subject of preceding constituent can be realized as the subject of complex predicate construction. However it is verb which can't confine the semantic role the subject of complex predicate construction has'. Therefore 'hada' was set differently compared to existing light verbs in this thesis.

'Hada' is heavily dependent since its meaning is very abstract in the process of forming complex predicate. Thus it can not have the independent argument structure. However it can have the dependent argument structure as it is combined

with the meaning of preceding constituent and forms complex predicate.

Syntactic intimacy and semantic relationship among associating constituent can't be the core characteristic to distinguish complex predicate.

【Key words】 : Complex Predicates, Meaning, Semantic union, Light Verb, Predicative, Hada

김경열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cnbkorean@hanmail.net

이 논문은 2017년 1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3월 7일에 심사 완료되어 3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